

Date: 2026.08.25

더페이지갤러리, 프랑스 콩소르시움 미술관의 50 주년 기념 기획전

《Up Against the Walls!》 개최

- 1977 - 2027 - 2077. 프랑스 콩소르시움 뮤지엄의 지난 50 년과 앞으로의 50 년을 잇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시작

- 김승덕·프랑크 고트로 기획, 콩소르시움의 역사를 함께해온 작가부터 새로운 세대 작가까지 총
9 명 참여

- 작품의 배경을 넘어 일부가 되는 '벽'을 통해 미술관과 갤러리, 작품과 공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

전시명	Up Against the Walls!
전시기획	콩소르시움 뮤지엄 공동 디렉터 김승덕, 프랑크 고트로
참여작가	장-마리 아프리우(Jean-Marie Appriou), 존 암리더(John Armleder), 이사벨라 두크로트(Isabella Ducrot), 나탈리 뒤 파스키에(Nathalie du Pasquier), 앙헬라 페라리(Ángela Ferrari), 실비 플뢰리(Sylvie Fleury), M/M (파리)(M/M (Paris)),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 비비안 장(Vivien Zhang)
전시기간	2026 년 8 월 26 일(수) – 10 월 10 일(토)
전시장소	더페이지갤러리,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2 길 32-14
문의	info@thepage-gallery.com, 02 3447 0049

더페이지갤러리는 오는 8 월 26 일부터 10 월 10 일까지 프랑스 다종의 **콩소르시움 미술관(Consortium Museum)**과 함께 《Up Against the Walls!》를 개최한다. 콩소르시움 미술관의 공동 디렉터 김승덕과 프랑크 고트로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2027 년에 설립 50 주년을 앞둔 미술관의 지난 50 년과 앞으로의 50 년을 연결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장이다.

지난 1977 년에 설립된 콩소르시움 미술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당대의 혁신적인 작가들을 일찍부터 발굴, 소개하고 이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오며 독자적인 역사를 구축해 왔다. 1980 년대에는 신디 셔먼, 리처드 프린스, 존 암리더 등을 프랑스에 소개했으며, 이후 1990 년대에는 피에르 위그, 필립 파레노, 마우리치오 카텔란, 우고 론디노네 등 여러 작가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왔다. 2001 년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관, 2003 년 제 7 회 리옹 비엔날레, 2013 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비롯해 릴 유럽문화수도, 발렌시아 비엔날레,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등 국제 전시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이후 도하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장소특정적 커미션 등을 통해 그 활동 무대를 미술관 너머로 확장하기도 했다. 또한 출판사 레 프레스 뒤 레엘(Les presses du réel)과 영화제작사 안나 샌더스 필름(Anna Sanders Films)을 함께 운영하며 출판과 영화 제작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콩소르시움 미술관은 설립 50 주년을 과거를 정리하는 하나의 회고전으로 기념하는 대신, 전 세계 갤러리 및 기관들과 협업하여 지난 역사를 새로운 장소와 형식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전시를 관통하는 세 개의 연도 '1977 - 2027 - 2077'은 설립의 시작점과 50 주년,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인 100 주년까지, 한 세기를 같은 시간 축에 나란히 놓는다.

더페이지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역사적 아카이브와 기록을 나열하기보다 콩소르시움 미술관과 함께해온 작가들의 현재 작업을 서울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펼쳐 보이며 기관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바라본다. 이는 그동안 미술관이라는 물리적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도시와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전개해온 콩소르시움의 방식,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감도는 기류', 즉 시대정신을 반영해온 이들의 궤적과도 맞닿아 있다.

이번 협업의 출발점은 '벽'이다. 더페이지갤러리가 상업 갤러리에서는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벽과 직접 관계 맺는 작업에 주목하는 전시를 제안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구체화됐다. 이는 오랫동안 작품과 공간, 그리고 전시 형식의 관계를 실험해온 콩소르시움의 역사와도 자연스럽게 중첩된다. 예컨대 콩소르시움은 1993년에는 바닥에 놓이거나 기대어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한 《Pièces au sol(바닥에 놓인 작품들)》을 개최하고, 1998년에는 이에 대응하는 《Tableaux aux murs(벽에 걸린 회화들)》을 선보인 바 있다. 김승덕과 프랑크 고트로는 《Up Against the Walls!》를 이 두 전시에서 시작된 문제의식을 다시금 구현하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벽은 이번 전시에서 작품을 설치하기 위한 배경에 머물지 않는다. 직접 그려진 벽화부터 벽지, 포스터, 회화,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들이 적극적으로 벽을 점유하고 그 일부 혹은 전체가 되면서 공간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벽은 작품과 건축, 회화와 장식, 이미지와 공간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Up Against the Walls!》라는 제목은 1960년대 후반 뉴욕의 급진적 반문화와도 맞닿아 있다. 김승덕과 프랑크 고트로 1960년대 예술과 정치, 제도와 일상의 경계를 거부했던 예술·정치 집단 Black Mask 와, 그로부터 이어진 반문화운동의 한 흐름인 'Up Against the Wall Motherfuckers(UAW/MF)'를 제목의 역사적 참조점으로 언급한다. 여기에 상대를 벽으로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는 명령형 표현인 'up against the wall'이 지닌 긴장과 도발적인 어감이 겹쳐진다. 이들에게 벽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친절한 표면이 아니다. 작품을 제한하고 가로막는 '적(enemy)'인 동시에 작품이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적극적인 '협업의 파트너(collaborative partner)'다. 이처럼 전시 제목은 '벽에 몰린다'는 수세적인 의미와 벽에 맞서고 활용해 그것을 작품의 일부로 전환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콩소르시움과 서로 다른 시간과 방식으로 관계 맺어온 9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벽을 각자의 언어로 해석하고 작업의 일부로 끌어들인다. 존 암리더와 실비 플뢰리는 오랫동안 이어온 벽 작업에 대한 탐구를 이번 공간에 새롭게 적용하고, 나탈리 뒤 파스키에는 기하학적인 벽면과 그 위에 배치된 소형 회화를 하나의 구성으로 연결한다. 비비안 장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벽지 위에 회화를 설치하며, M/M (파리)는 두 전시장을 잇는 복도를 포스터로

채워 통로 자체를 하나의 이미지 공간으로 전환한다. 우고 론디노네는 고인이 된 파트너이자 예술가인 존 조르노가 시 《thanx 4 nothing》을 낭독하는 영상을 서로 마주 보는 두 벽에 투사하여 하나의 목소리와 두 개의 이미지가 공간 전체를 구성하도록 한다. 이사벨라 두크로트의 대형 종이 작업, 앙헬라 페라리의 대형 삼면화, 장-마리 아프리우의 조각 작업 역시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벽과 공간에 개입해 대화를 시도하면서 전시의 풍경을 역동적으로 완성한다.

김승덕과 프랑크 고트르는 “《Up against the walls!》는 우리가 긴 역사 동안 함께 작업해온 최고의 작가들 가운데 일부를 한국으로 데려온다. 과거의 생생한 이미지와 오늘의 찬란한 장면들이 공존하는, 우리의 기억을 되짚는 여정이다”라고 말한다. 1983년부터 20 회 이상 콩소르시움의 전시에 참여해온 존 암리더부터 2026 년 현재 콩소르시움 미술관에서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 앙헬라 페라리까지, 이 작가들의 세대와 국적, 그리고 작업 방식은 모두 다르다.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특정한 양식이나 미학이 아니라, 작가와의 관계를 새로운 작업과 전시로 발전시켜온 콩소르시움의 방식이다. 김승덕과 프랑크 고트로 는 이를 ‘가족’이나 ‘공동체’가 아닌 “자유로운 정신들의 자유로운 결합”이라 표현한다. 하나의 선언이나 규칙 아래 모인 집단이 아니라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황에 따라 다시 만나고 협업하는 유연하고도 지속적인 관계다. 전시는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콩소르시움 미술관의 50 년이 여전히 진행 중인 관계의 역사임을 드러낸다.

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시 조건에서 출발한 《Up Against the Walls!》는 작품과 공간, 그리고 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고찰한다. 더페이지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와 기획자, 각기 다른 기관의 교류가 실제의 작업과 전시로 발전, 지속될 수 있는 협업의 구조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지난 50 년 간 작가들과 축적해온 신뢰와 교류를 바탕으로 전시 및 프로젝트를 발전시켜온 콩소르시움의 방식과 더페이지갤러리가 지향하는 전시 프로그램의 방향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콩소르시움 미술관의 50 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향후 여러 지역과 기관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로 이어질 예정이다.

작가 소개

장-마리 아프리우(Jean-Marie Appriou, b. 1986, Brest. Lives and works in Morlaix)

장-마리 아프리우는 2019 년 콩소르시움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주로 조각을 중심으로 작업해왔던 그는 당시 전시에서 부조와 판화를 함께 선보이며 입체와 평면, 벽과 공간을 다뤘다. 바닷속에서 솟아오르거나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인간과 동물 및 식물의 형상은 이후에도 그의 작업을 이루는 주요한 조형 언어로 이어지고 있다.

아프리우는 알루미늄, 청동, 유리, 세라믹 등 이질적인 물성을 지닌 재료와 제작 방식을 실험하며 독자적인 조각 세계를 형성해 왔다. 인간과 동식물의 익숙한 형상을 신화와 문학, 공상과학의 이미지와 결합하고 변형해 현실에 존재할 법하면서도 낯선 존재들을 만들어낸다. 주조와 수공의

강한 흔적을 남기는 표면, 금속이나 블로운 글라스처럼 성질이 다른 재료의 결합 역시 그의 작업을 특징짓는 요소다.

이번 전시에는 청동, 유리, 알루미늄 등으로 제작한 조각과 부조가 함께 소개된다. 바닥에 놓이는 입체에서 벽에 밀착되는 부조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깊이와 물성을 가진 작업들이 공간을 점유하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아프리우에게 벽은 조각과 대립하는 평면이 아니라 형태와 물질이 다른 방식으로 자리 잡는 또 하나의 조각적 표면이다.

존 암리더(John Armleder, b. 1948, Geneva. Lives and works in Geneva)

존 암리더는 1983 년부터 20 회 이상 콩소르시움 미술관의 전시에 참여했다. 김승덕과 프랑크 고트로는 그를 지난 50 년 역사를 함께해 온 가장 가까운 예술적 동료 중 한 명으로 꼽는다.

암리더는 벽과 회화를 장식과 1920 년대 역사적 아방가르드, 팝 문화와 일상의 시각적 요소가 교차하는 장으로 다뤄왔다. 그에게 채색된 벽은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되는 표면이 아니라 다른 회화와 오브제가 언제든지 다시 겹쳐질 수 있는 공간이다.

암리더는 1960 년대 후반 플럭서스의 실험적 흐름 속에서 활동했으며, 1969 년에는 에카르(Ecart) 그룹을 공동 창립해 전시와 출판,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협업을 전개했다. 이후 회화와 조각, 가구와 오브제, 장식과 추상 사이의 위계를 두지 않고 서로 다른 미술사적 언어와 일상적 요소를 자유롭게 결합했다. 특히 1970 년대 후반부터 전개한 'Furniture Sculpture' 연작은 회화와 가구, 기능적이거나 장식적인 사물을 병치하며 작품과 디자인, 전시 공간을 일종의 환경으로 구성하는 대표 작업이다.

더페이지 갤러리의 공간에서 암리더는 《Untitled (FS 203)》(1988)을 선보인다. 대형 회화와 트럭의 부품인 스포일러를 결합한 이 작품은 회화와 일상적 사물, 벽과 공간을 동등한 구성 요소로 다루는 작업 방식을 나타낸다. 암리더는 벽을 작품을 걸기 위한 배경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만나고 중첩되며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공간으로 해석한다.

이사벨라 두크로트(Isabella Ducrot, b. 1931, Naples. Lives and works in Rome)

이사벨라 두크로트는 2022 년 콩소르시움 미술관의 그룹전《The Drawing Centre Show》에 참여한 데 이어, 2024 년 김승덕과 프랑크 고트로의 기획으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6 개의 전시실에 걸쳐 종지와 식물, 콜라주를 중심으로 최근 작업 및 신작을 망라한 대규모 전시였다.

1980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두크로트는 수십 년간 수집하고 연구해 온 식물과 종이를 주요 재료이자 주제로 다루면서 공예와 여성의 문제, 회화와 미니어처 등의 관계를 탐색한다. 오랜 여행을 통해 수집한 페르시아 세밀화부터 앤티크 식물, 직조의 구조와 반복되는 문양에 대한 관심은 종지와 천 위에 안료와 잉크, 파스텔, 콜라주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콩소르시움의 개인전에서도 바닥에 놓이는 카펫과 벽에 걸리는 테피스트리처럼 수평의 직물이 수직의 이미지로 전환되는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두크로트는 이번 전시를 위해 세 점의 대형 작업을 제작했다. 종이 위에 콜라주와 안료, 목탄을 활용한 이 작품들이 전시 공간에 들어선 관람객을 처음 맞이한다. 그중 《Terra》는 가로 5.9 미터에 이르며 두 점의 《Vaso》 역시 각각 높이 2.7 미터 규모로 제작됐다. 두크로트는 가볍고 유연한 종지와 식물의 물성을 벽의 규모로 확장하며 평면이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나탈리 뒤 파스키에(Nathalie Du Pasquier, b. 1957, Bordeaux. Lives and works in Milan)

나탈리 뒤 파스키에는 1981 년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가 이끈 디자인 그룹
 멤피스(Memphis)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가구와 패브릭, 오브제, 출판 등 다양한 작업을
 전개했다. 대담한 색채와 기하학적 패턴으로 잘 알려진 그는 1987 년 이후 회화를 주요 매체로
 삼았으며, 사물의 배열과 구조, 색면과 형태를 통해 평면과 입체, 회화와 공간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해 왔다.

**이번에 뒤 파스키에는 전시 공간 양 끝의 서로 마주 보는 벽에 기하학적 벽화를 제안하고 그 위에
 또 다른 회화를 배치한다. 이는 하나의 회화적 공간으로 구성된 벽 안에 다시 회화를 배치하는
 최근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초기에는 캔버스 주변 벽에 트롱프뢰유적인 건축 요소를 그리는
 방식을 고안했지만 최근에는 투시도와 같이 구성된 복잡한 벽면 안에 회화를 거의 숨기듯
 배치한다. 이번 전시에 배치된 작은 회화 역시 각각의 캔버스가 독립된 이미지에 머무르기보다
 벽의 일종의 요소로 작동하도록 한다.**

뒤 파스키에는 오랫동안 한국의 책거리를 관심 있게 봐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자신의 작업을
 책거리와 동일시하지는 않지만, 작가는 하나의 구조 안에 여러 사물을 배치하고 각기 다른 재현
 방식을 한 화면에 공존시키는 방식에 주목한다. 이번에도 개별 회화와 그 배경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구성으로 결합하며 벽 자체를 회화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앙헬라 페라리(Ángela Ferrari, b. 1990, Buenos Aires. lives and works in Mexico City)

앙헬라 페라리는 이번 전시의 참여 작가 가운데 가장 최근 콩소르시움의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2026 년 김승덕과 프랑크 고트로의 초대로 《L'Almanach 26》에 참여해, 미술관과 협업하고 있는
 부르고뉴의 와인 양조가 로마네 콩티(Domaine de la Romanée-Conti)가 운영하는 전시장
 아카데미 콩티(Académie Conti)에서 전시를 개최했다. 페라리는 회화를 중심으로 섬유와 설치를
 아우르는 작업을 전개한다. 서구 고전회화의 사냥 장면과 동식물의 도상을 출발점으로 포식자와
 피식자, 인간과 동물,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재구성한다. 원근법과 비례를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하고 동식물의 크기를 자유롭게 뒤섞으면서 전통적인 회화가 구축해 온 중심과 주변의 위계를
 흐트러뜨린다.

**이번 전시를 위해 페라리가 제작한 대형 삼면화와 작은 회화에는 야생동물과 꽃이 전면
 등장하며, 주요 형상 사이에는 벌레와 잠자리, 벌과 같은 미세한 생명체들이 더해진다. 김승덕과
 프랑크 고트로의 이러한 요소를 17 세기 정물화에서 삶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환기했던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의 전통과 연결한다. 다양한 크기와 시점의 생명체들이 한 화면에 뒤섞이며
 벽 전체를 밀도 높은 회화적 장면으로 전환한다.**

실비 플뢰리(Sylvie Fleury, b. 1961, Geneva. Lives and works in Geneva)

실비 플뢰리는 1994 년 콩소르시움 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기관의 전시와 출판,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2007 년 제 2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에서는
 김승덕과 프랑크 고트로의 기획으로 안양시청 앞에 비행접시를 연상시키는 공공조각을

연구설치하기도 했다. 존 암리더, M/M (파리)와 함께 콩소르시움의 주요 프로젝트를 장기간 함께해 온 작가 중 한 명이다.

플뢰리는 1990년대 초부터 패션과 화장품, 자동차, 광고 등 소비문화의 시각 언어와 현대미술의 형식을 함께 다뤘었다. 쇼핑백과 향수 브랜드, 자동차와 화장품 같은 일상적 기호뿐 아니라 프랭크 스텔라, 도널드 저드, 솔 르윗, 칼 안드레, 다니엘 뷔렌 등 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주요 작가와 작품 역시 반복적으로 차용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미술과 디자인, 장식과 추상, 젠더에 따라 구분되어 온 기존의 시각적 위계와 관습을 유희적으로 비튼다.

이번에 소개되는 벽화 역시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다니엘 뷔렌의 반복적인 수직 줄무늬를 연상시키는 벽면은 마치 창살처럼 공간을 가로막지만, 일부 선이 곡선으로 휘어지며 그 사이에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생겨난다. 플뢰리는 남성 미술가들이 구축해온 모더니즘의 엄격한 형식을 존중하되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보다 비틀고 변형해 벽이 지닌 규칙성과 통제에 이미지를 뒤섞는다.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 b. 1964, Brunnen. Lives and works in New York)

우고 론디노네는 콩소르시움 미술관의 설립 20주년이던 1997년에 첫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후 전시와 비엔날레,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콩소르시움의 주요 프로그램을 함께해 왔다. 회화와 조각,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연과 시간, 인간의 존재와 감정을 다뤘은 그는, 이번 전시에서 고인이 된 파트너이자 예술가인 존 조르노(1936-2019)를 담은 영상 설치 《thanx 4 nothing》을 선보인다.

《thanx 4 nothing》은 조르노가 70세 생일에 쓴 동명의 시를 직접 낭독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랑과 상실, 친구와 적, 죽음과 영적 경험 등을 통찰하는 시는 조르노의 목소리와 몸짓, 낭독의 리듬을 통해 하나의 시청각적 경험으로 전환된다. 영상은 서로 마주 보는 두 벽에 조르노의 모습을 각각 투사한다. 한쪽에는 검은 텍시도를, 다른 쪽에는 흰 텍시도를 입은 조르노가 같은 시를 낭독하며, 하나의 목소리와 두 개의 영상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연상시키는 구조를 이룬다. 마주한 두 벽은 단순한 투사면을 넘어 하나의 인물을 두 이미지로 나누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서 대면하게 하는 작품의 구조가 된다.

M/M(파리)(M/M (Paris), Established in 1992, Paris)

[Mathias Augustyniak 마티아스 오귀스티니악 (b.1967, Cavaillon) and Michael Amzalag 미카엘 암잘라그 (b. 1968, Paris)]

M/M(파리)는 마티아스 오귀스티니악과 미카엘 암잘라그가 1992년 파리에서 결성한 아트·디자인 듀오다. 1996년부터 콩소르시움의 전시에 꾸준히 참여해온 이들은 이후 김승덕과 프랑크 고트로가 기획한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했다.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 디자인을 기반으로 포스터와 출판, 패션, 음악, 전시와 공간 디자인을 넘나들며 이미지와 문자를 독립적인 조형 언어로 다루는 방식은 이들의 전매특허다.

M/M(파리)의 작업에서 이미지는 다양한 기호와 언어가 결합, 재배열되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작동한다. 이러한 접근은 2025년 부산의 F1963에서 열린 개인전《사랑/마법 ♥/MABEOB M/MAGIE》에서도 이어졌다. 이들은 타로 카드를 일종의 시각적 언어로 상정해 직접 디자인했으며,

서로 다른 카드와 기호가 조합에 따라 의미를 재구성하는 체계를 작업에 적용했다. 이 전시를 위해 제작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역시 문자와 이미지가 번역되고 교차되는 과정에 대한 이들의 관심을 보여준다.

M/M(파리)는 이번 전시에서 두 개의 전시 공간을 잇는 복도 전체를 포스터로 구성한다. 양쪽 벽면에 3 열 7 행으로 배치된 총 42 장의 포스터들은 서로 겹쳐지며 낮과 밤을 오가는 연속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각각의 포스터는 독립된 이미지인 동시에 서로의 일부를 가리고 드러내며 더 큰 구성을 만들고, 복도의 벽은 포스터를 진열하는 배경이 아니라 이미지의 순서와 중첩을 조직하는 하나의 그래픽 공간으로 작동한다.

비비안 장(Vivien Zhang, b. 1990, Beijing, Lives and works in London)

1990 년 베이징에서 태어나 케냐와 태국 등에서 성장하고 현재 런던에서 활동 중인 비비안 장은 2024 년 콩소르시움 미술관의 그룹전 《Abstraction (re)creation: 20 under 40》에 참여했다. 각각 다른 지역과 배경에서 활동하는 40 세 이하 작가 20 명을 소개한 이 전시는 이후 구성을 달리해 베이징의 X Museum 로 이어졌다.

비비안 장은 이미지와 정보가 이동하고 결합되는 방식을 회화로 탐구한다. 세계지도 투영법과 수학적 구조, 식물과 유기적 형태, 직물의 패턴, 디지털 환경에서 접하는 시각 자료 등 출처가 다른 이미지들을 한 화면에 포개어 놓는다. 작가는 자신의 회화를 여러 영향과 참조가 모이는 '장소'로 설명하며, 다양한 회화적 층위와 시각적 파편을 충돌시켜 화면 안에서 무엇이 우선되고, 또 무엇이 우리의 시선을 요구하는지를 질문한다. 이러한 관심은 2024 년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그룹전 《드림 스크린》에서도 이어졌다. 인터넷과 디지털 스크린으로 접하는 이미지와 정보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이 전시에서 작가는 이질적인 시각 체계가 중첩되는 자신의 회화적 관심을 이어갔다.

《Up Against the Walls!》에서 비비안 장은 회화가 걸리는 배경 자체를 작업 안으로 끌어들인다. 전시를 위해 새롭게 고안한 벽지 위에 회화를 배치함으로써 개별 캔버스와 벽 전체의 이미지가 겹쳐 보이도록 구성한다. 캔버스 내부에서 진행되는 이미지의 중첩과 교차가 벽 전체로 확장되면서 회화와 배경 역시 하나의 시각적 구조 안에서 작동한다.